

# ‘시즌 7승’ 류현진, 돋보인 위기관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26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연속 이닝 무실점 행진을 마감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해 실점을 최소화했다. 류현진은 26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2019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10개의 안타를 맞고도 2실점으로 막아냈다. 5월 들어 매서운 페이스를 자랑하며 박찬호의 기록을 넘겼던 류현진은 이날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류현진은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2회부터 20일 신시내티 레즈전까지 31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다저스 역대 최장 이닝 무실점 순위에서 밥 밀러,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 3회까지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면 샌디 카우프스와 박찬호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었다.

루팩스는 1963년 7월 33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박찬호는 다저스에서 뛰던 2000년 9월 20일부터 2011년 4월 8일까지 두 시즌에 걸쳐 33이닝 연속 무실점 투구를 선보여 이 부문 역대 순위 공동 9위에 자리했다. 류현진은 공 7개만으로 1회말을 삼자범퇴로 끝내 32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브라이언 레이놀즈, 스티브 마르테를 연달아 3구 삼진으로 속아냈다. 2회말 선두타자 조시 벨에 원바운드로 가운데 펜스를 맞추는 2루타를 얻어맞은 류현진은 후속타자 멜키 카브레라에 포수 앞에 떨어지는 땅볼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를 잡은 포수 러셀 마틴이 3루에 악수구를 저지르면서 벨이 홈까지 들어왔다. 케빈 뉴먼을 투수 땅볼로 잡은 류현진은 프랜시스코 서벨리에 중전 안타를 맞아 1사 1, 3루의 위기에 몰렸고, 콜 터커에 중전 적시타

피츠버그 원정경기 선발 6이닝 2실점 ‘호투’ 무실점 행진 마감…안타 10개 불구 불넷은 ‘0’

를 허용해 실점이 2로 늘었다. 류현진의 연속 이닝 무실점 행진도 끝나고 말았다. 2일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1회 1점을 준 이후 처음으로 실점했다. 연속 이닝 무실점 행진을 마감한 류현진은 앞선 경기와 비교해 위력적인 투구를 하지는 못했다. 수 차례 위기를 자초했다. 피츠버그에 무려 10개의 안타를 얻어맞았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피안타다. 하지만 야수들의 도움 속에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 실점을 최소화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류현진의 위기 관리 능력은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사전에 ‘대량실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2회말 1사 2, 3루의 위기에서 희생번트를 허용해 2사 2, 3루의 위기를 이어간 류현진은 애덤 프레이저에 컷 패스트볼로 유격수 땅볼을 유도해 더 이상의 실점을 막았다. 류현진은 3회말에도 마르테, 벨에 연속 안타를 맞고 1사 1, 2루의 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멜키 카브레라에 초구 투심 패스트볼로 유격수 방면에 병살타를 유도해 순식간에 이닝을 끝냈다. 류현진은 4회말 선두타자 뉴먼에 3루수 방면 내야안타를 맞았다. 대타로 나선 엘리아스 디아스에 체인지업을 공략하며 좌중간에 떨어지는 2루타를 허용했다. 중견수 알렉스 버두고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타구는 글러브에서 빠져나왔다. 무사 2, 3루의 위기에서 류현진은 콜 터커와 조 머스그로브에 모두 외야 뜬공을 유도했다. 잘 맞은 타구

였으나 외야수들의 글러브에 빨리 들어갔다. 짧은 타구라 3루 주자가 홈을 밟기 힘들었고 외야수들의 홈송구도 주자들의 득점을 막았다. 류현진은 프레이저를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고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6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선두타자 뉴먼에 2루타를 허용해 또다시 실점 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디아스에 컷 패스트볼로 터커에 체인지업으로 내야 땅볼을 유도해 침착하게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류현진은 계속해서 2사 3루의 실점 위기를 이어갔으나 우익수 코디 벨린저의 호수비에 힘입어 제이크 엘모어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았다. 불넷이 없었던 것도 류현진이 자멸하지 않았던 이유였다. 삼진 3개를 속이내는 동안 불넷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 5회말 무사 1, 2루에서 벨을 상대하며 볼카운트 3B1S에 몰렸으나 과감한 승부로 내야 땅볼을 유도해냈다. 6회말 2사 2루에서 엘모어를 상대하면서도 체인지업, 컷 패스트볼 제구가 흔들려 볼 3개를 연달아 던졌으나 불넷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시즌 탈삼진 62개, 불넷 4개를 기록한 류현진의 삼진/불넷 비율은 15.5가 됐다. 양테리그를 통틀어 압도적인 선두를 잡을 중이다. 이 부문 2위는 잭 그레이inker(애리조나 다리아몬트팩스)인데 7.44로 류현진과 격차가 크다.

불넷을 허용하지 않은 덕분에 류현진은 피안타 10개를 맞고도 투구수 93개로 6이닝을 버텨 6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3자책점 이하)도 이어갈 수 있었다.



## 광양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우승 진중 팀, 준우승 목성 B팀, 공동3위 하나로 팀-목성 A팀

광양시게이트볼협회(회장 김종필)가 지난 23일 광양삼내 게이트볼장에서 ‘제18회광양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20개 광양시 게이트볼 클럽에서 24개 팀 300여 명이 참가 팀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이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 끝에 목성 B팀과 진중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지난해 우승 팀으로 우승기를 반환했던 진중 팀은 목성 A팀에게 아깝게 패해 결국 연승의 기회를 놓쳤다. 이날 우승 팀의 목성 B팀은 준결승전에서 같은 클럽 목성 A팀과 만나는 불운 끝에 실력 대 실력을 겨루는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김종필(광양시게이트볼협회)회장은 입상자들의 시상을 미치고 폐회사에서 “그동안 동호인들의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 되었다”며 “모두가 게이트볼을 사랑하고 훈련에 열중했던 결과라”고 말하고 “건강을 지키고 친목과 화합을 위해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U-20 월드컵 한국, 포르투갈에 0:1 패배

이강인에 의존多…29일 남아공 상대로 첫 승 도전

한국 축구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폴란드 월드컵 첫 경기에서 우승후보 포르투갈에 무릎을 꿇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5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폴란드 비엘스쿠비야와의 비엘스쿠비야와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대회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경기 초반 트린강(SC브라가)에게 내준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0-1로 패했다. 2회 연속 16강 진출을 위해 최소 승점 4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패했지만 우승후보를 상대로 1실점으로 비교적 선전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19세 이하(U-19)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강호다. FIFA 순위는 7위다. 한국은 37위. 이번 대회에는 총 24개국이 출전해 4개국씩 6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상위 1위와 2위, 3위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진출한다. 다음 상대는 FIFA 순위 73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29일 오전 3시30분 티헤에서 맞붙는다. 16강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다. 이날 지나치게 이강인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남은 조별리그에서 개선해야 할 모습이다. 정 감독은 중앙수비수 3명을 뒤에 세우는 3-5-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좌우 윙백까지 사실상 5백 형태였다. 조영욱(서울)과 전세진(수원)이 최전방에 섰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발렌시아)이 2선에서 지원했다. 이렇지만 상대가 우승후보임을 감안하면 한 골차 패배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 최지만, 결승 투런포 포함 멀티히트

템파베이, 클리블랜드에 6-2勝

최지만(28·템파베이 레이스)이 결승 투런포를 포함해 멀티히트를 때려내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최지만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1-1로 팽팽히 맞선 5회초 홈런을 때려냈다. 5회초 2사 1루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상대 우완 선발 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의 4구째 시속 98.8마일(약 151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아치를 그려냈다. 지난 11일 뉴욕 양키스 전 이후 11경기, 15일 만에 때려낸 시즌 4호 홈런이다. 템파베이가 토미 판의 중월 투런 홈런으로 6-1까지 달이던 7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상대 좌완 불펜 투수 조시 D.스미스의 3구째 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우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뽑아냈다.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최지만은 시즌 타율을 0.259에서 0.264(140타수 37안타)로 끌어올렸다. 최지만이 멀티히트를 때려낸 것은 지난 23일 LA 다저스 전 이후 3경기 만이고, 시즌 11번째다. 템파베이가 6-2로 승리하면서 최지만의 투런포는 결승 홈런이 됐다. 템파베이는 30승(19패)을 수확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2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5회초 좌월 투런포를 때려낸 뒤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을 준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술, 화원사, 선전길,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이재-기린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